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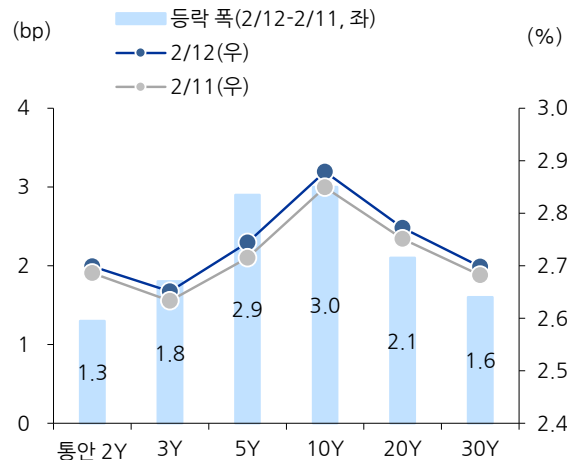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38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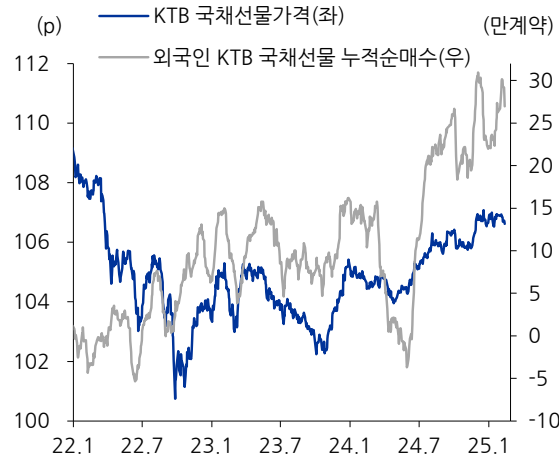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2/12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651%	1.8	7.3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79%	3.0	6.1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2.8	21.6	24.0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62	-8.0	-25.0
	10년 국채 선물(KTB)	117.99	-31.0	-66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352%	6.9	16.3
	미국채 10년물	4.625%	8.9	20.6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27.4	25.4	23.1
	독일국채 10년물	2.477%	4.9	11.7
	호주국채 10년물	4.463%	7.5	10.3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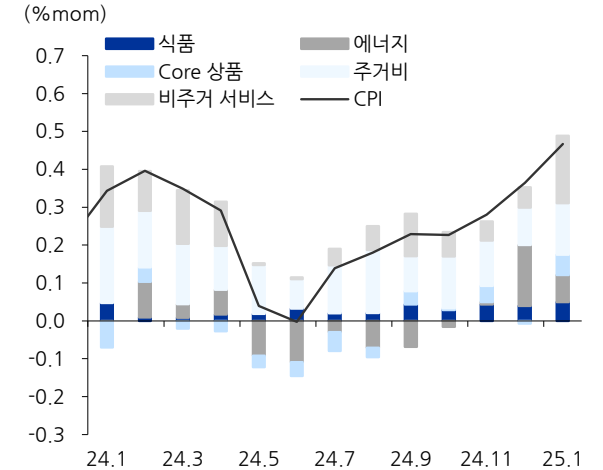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전일 파월 상원 의회 증언 소화하며 금리 반등. 파월, 현 정책 기조가 이전 대비 크게 덜 제약적이며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므로 금리 인하 서두를 것 없다고 발언
-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, 추경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함을 언급. 미 CPI 발표 코 앞에 두고 경계감도 장 중 지속

미국 CPI 상승률 기여도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미 CPI, 월간 상승률 기준 23년 8월 이후 최대치 기록. 특히 주거비 제외 서비스는 전월비 0.76% 상승하며 12월(0.2%) 대비 모멘텀 대폭 강화
- 파월, 하원 의회 증언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에 가까우나 도달하지 못했으며, 제약적 금리를 유지할 의사 밝힘
- 이러한 가운데 미국채 10년물 입찰이 부진한 수요를 드러낸 점도 부담으로 작용
- 대선 트럼프, 푸틴과 러우전쟁 종전 협상 즉각 시작하기로 전하며 금리 상승폭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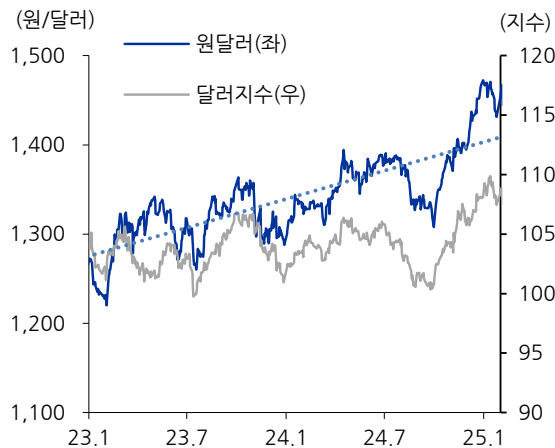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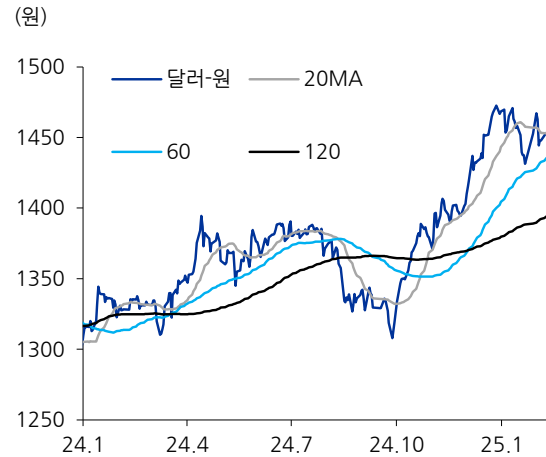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2/12일	1D	1W	YTD
원/달러	1,453.40	0.1%	0.6%	-1.3%
달러지수	107.94	0.0%	0.3%	-0.5%
달러/유로	1.039	0.3%	-0.1%	0.4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31	0.0%	0.4%	-0.3%
엔/달러	154.44	1.2%	1.1%	-1.7%
달러/파운드	1.245	0.0%	-0.5%	-0.6%
헤알/달러	5.76	-0.1%	-0.8%	-6.8%
WTI 근월물(\$)	71.37	-2.7%	0.5%	-0.5%
금 현물(\$)	2,901.02	0.1%	1.3%	10.5%
구리 3개월물(\$)	9,469.00	1.2%	2.5%	8.0%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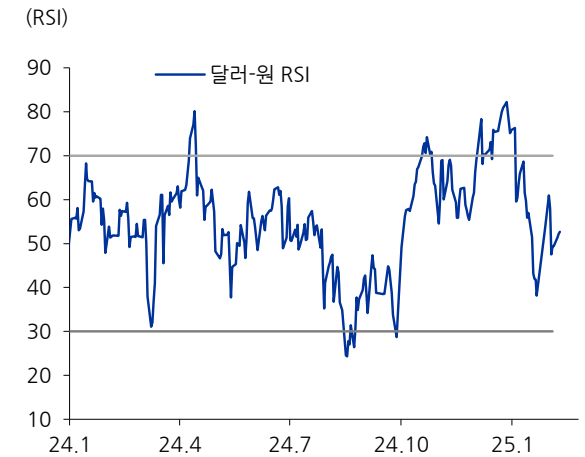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0.80원 상승한 1,453.4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56.00원 마감.
- 간밤 달러는 소폭 하락에 그쳤고 달러-원도 -0.10원 하락 출발. 개장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며 1,455원 선까지 상승했으나, 이후 고점 매도 물량 속 1,449원까지 급락.
- 그러나 이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합권까지 회복. 미국 물가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 작용하면서 변동폭은 크지 않았음.

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CPI 예상치 상회로 상승.
- 1월 CPI 및 Core CPI 각각 +3.0%(Y), +3.3%(Y) 상승해 시장 예상치 상회. 중고차/차량 보험료 급등 영향 있으나, 지난 2년 간 반복된 1월 가격 인상 여파가 반복된 것으로 예상.
-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,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모두 이번 CPI 지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으나 다소 우려를 남겼음.
- 달러 인덱스는 CPI 발표 이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한 때 108.5선까지 급등했으나,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우크라이나 중전 협상을 시작했다고 발언하면서 유로화 강세 속 반락.